

●國內經濟 經濟外的 要因이 景氣主導

李 甲 燮  
 〈成均館大學校教授·經博〉

1

1986년을 “3低”의 해였다고 한다면 1987년은 “3低”退潮의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내리기만 하던 國際金利도 86년을 下限으로 하여 더욱 내리지는 아니하였고 미국 달러가치의 하락도 87년에 이르러 그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國際原油價格은 87년에 들어서서 종전의 低價體制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國際原資材價格도 86년 여름을 하한으로 하여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원貨도 87년 들어 계속 급속한 오름세를 보여줌으로써 달러가치 하락이 우리에게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기에 더욱 87년 여름은 空前의 뜨거운 노사분규로 한때 經濟活動이 마비되지만 않을까 우려되기도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지난 한해의 우리 경제는 86년의 12.5%라는 높은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높은 成長率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마도 9% 안팎의 것이 되거나 없을까 예상된다.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이른바 제6차經濟社會發展 5개년計劃이 책정하고 있는 87년의 經濟成長率 8%를 밑돌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物價는 최소한 연간 약 5% 안팎의 다소 불안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경우 成長의 牽引車的 役割을 한 것은 輸出의 繼續的인 增大와 큰

폭의 貿易黑字實現이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추세는 1988년에는 과연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가.

2

먼저 새해의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國際經濟 環境的인 要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관한 것부터 생각해보기로 하자.

우리의 경우 허다한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3低현상의 주역 노릇을 한 달러가치, 原油價格, 國際金利를 비롯하여 국제원자재 가격,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미국의 財政赤字와 貿易赤字, 日本의 엔貨추세와 市場開放速度, 선진국의 경기동향, 심지어는 東西貿易의 進展如何까지 여러가지다. 商品貿易 의준도만 하더라도 GNP의 80% 이상이 되는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는 국제경제적 요인은 이처럼 그 가지수도 많은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은 어떻게 되리라고 볼 수 있는가.

먼저 86년에 우리가 그토록 덕을 본 3低의 風向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달러가치는 앞으로 도 쉽사리 하락세를 멈추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지난 2년의 경우처럼 급속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달러가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엄청난 미국의 貿易赤字는 88년에도 持續될 것이나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의 국제수지가 계속해서 악화일로의

길을 걷는 날에는 세계경제의 순환이 그야말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는 각국의 협력으로 사전에 회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國際收支赤字는 좀처럼 쉽게 改善되지 않을 것이므로 달러가치는 緩慢한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고 이에 따라 日本의 엔貨는 계속해서 그런대로 “엔高”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國際金利水準도 현재 다시 오르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선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국의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협조를 한다면 함부로 금리를 올리는 못할 것이고 심든 좋은 低金利政策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일본이나 서독과 같은 先進 黑字國은 미국보다도 낮은 금리를 쓰지 않으면 막대한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허덕이는 미국에 資本流入을 기대할 수 없고 또 對美黑字緩和을 위한 內需擴大를 꾀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달러가치 인하에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바로 그 한계에 거의 다다른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은 역지로 달러가치를 내리기보다는 이들 선진국의 內需擴大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더욱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이므로 그 한가지 방편으로 미국은 이들 선진국에 대해서 低金利採擇의 압력을 더욱 가하게 될 것이다. 또 바로 이런 입장에서 미국은 우리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市場開放壓力을 더욱 가해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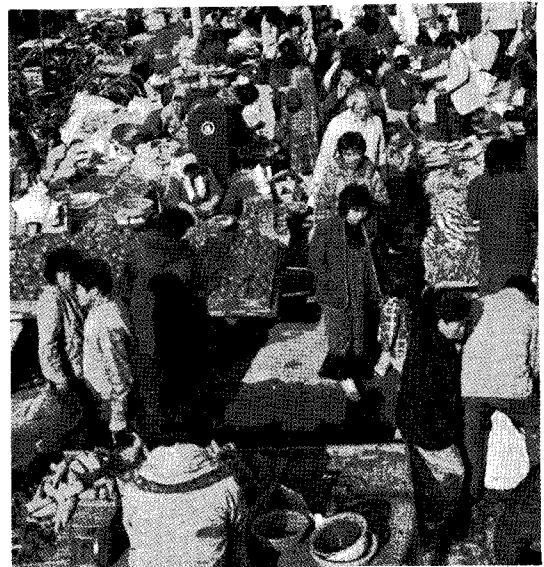
3低의 또 한 기둥을 이루고 있는 國際原油價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결코 低價時代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OPEC가 추구하는 바와 같은 高유가와도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상대적 안정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원유가는 87년 상반기에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하반기에 와서는 도리어 供給過剩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88년에도 원유가는 큰 변동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고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3低는 이미 그 빛이 바래기는 하였

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대로 그것은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국제금리가 터무니 없이 높기만 하며 원유가가 계속 오르던 때의 그것과 비교하면 한결 유리한 것이고 우리경제의 운행에 덜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88년에 일본이나 서독과 같은 선진 후자국이 市場開放과 景氣振作 또는 저금리정책 등으로 內需擴大를 꾀하지 않는다면 美國은 무역적자해소를 위한 화살의 방향을 우리와 같은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도 돌리게 될 것이 뻔하므로 그저 안일하게만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선진국의 태도다. 이에 있어서도 특히 미국의 財政赤字와 貿易赤字問題이고 일본과 서독 등의 內需擴大問題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보니 미국의 경우 財政과 貿易의 쌍둥이赤字는 이제 “레이저노믹스”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재정적자를 해소하지 않는 한 무역적자 해소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해소하자니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이 늘어날 것이 뻔하므로 이럴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으므로 결국 그 타을 일본과 서독에 돌리고 한국과 대만 등에 돌릴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만



것 같다. 이런 뜻에서 88년에도 미국은 우리에게 대해 韓美貿易의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원貨의 계속적인 절상 압력과 國內市場에 대한 開放壓力的 高배를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國際環境條件은 이처럼 결코 유리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先進國의 保護主義的 輸入規制와 우리 市場에 대한 開放壓力만 강해지지 않으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제 밑에서 우리 경제활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선 예상되는 몇가지 주요 特徵的局面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88년은 대통령 선거에 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자 또한 올림픽경기가 있는 해라는 뜻에서 經濟外的 特需 품이 일 것이 틀림 없다. 選舉는 경제적인 면만 보면 막대한 資金살포의 행위이다. 이 경우 자금살포는 生産的인 것이 아니라 消費的인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인플레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選舉公約의 남발은 바로 각종 支出事業과 建設事業의 公約 남발이기 때문에 자칫 투기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적인 期待心理를 낳기 일쑤다. 이와 함께 올림픽경기도 또한 수요의 異例的인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우리 경제의 活況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새해에 들어설 政府는 經濟政策의 基調를 보다 民主的인 것으로 수정할 것이고 勞使關係와 賃金決定方式도 또한 보다 民主的인 것으로 되기 위한 調整의 過程을 겪게 될 것이다. 임금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의 향상과 낙후지역의 개발, 빈곤대책, 소득 분배구조의 시정 등을 위한 정책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종래와 같은 대기 업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해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政策基調變化는 支出 패턴면에서도 소비지출의 증대와 같은 변화를 예상케 할 것이다.

經濟政策基調의 변화와 勞使關係의 民主化 및 賃金引上의 잇달은 要求는 企業經營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은 종래의 低賃金依存的인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高賃金에도 견딜 수 있는 경영전략과 投資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해는 생산성의 향상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한 研究開發과 設備改善 투자를 위한 切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를 뒷바침이나 한듯이 주요 財閥그룹에서는 이미 새해에 自動化部門의 投資를 예년의 2배로 확대하고 20%의 생산성 향상을 이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의 재벌 그룹의 生産性向上投資計劃은 오로지 賃金引上에 대한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급속한 元貨절상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때를 놓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때마침 86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큰 폭의 貿易黑字는 이를 위한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로는 역시 輸出入의 동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貿易依存도가 매우 높은 우리에게는 수출입의 동향이야 말로 우리 경제활동의 전체적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먼저 수입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선거와 올림픽 등으로 인한 소비수요의 증대, 生産性向上投資의 증대, 미국의 市場開放壓力的 증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輸入自由化 폭의 확대 등으로 輸入은 그 증가율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輸出은 元貨切上 압력의 증대와 국내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價格競爭力의 弱화에다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輸入規制強化와 競爭國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輸出鈍化要因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價格 및 非價格競爭力을 증강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商品 및 市場構造의 改善를 적극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수출전망은 다소 불확실성이 많고 불투명하다. 그러나 수출증대의 餘勢는 과거의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4

88년은 6차 5개년계획의 제 2차년이다. 이

계획에 따르자면 88년에는 經濟成長率이 7.5%이고 總投資率은 30.5%, 商品輸出은 430억달러, 輸入은 392억달러로 經常收支는 50억달러의 黑字를 나타낼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計劃은 切해부터 차질을 일으켰으므로 거의 休紙化된 것이나 다름 없지만 역지로 그 有效性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國際環境條件이나 豫想되는 經濟活動상의 特徵的 局面展開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은 것이므로 生命力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의 88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여전히 이 계획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정책당국은 88년 중 세계경제는 87년보다 높은 성장세에 交易增加를 보일 전망이지만 元貨절상 압력의 증대, 3低요인의 감퇴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수치의 제시면에서는 5개년계획상의 結果值에 맞추려는 듯이 成長率은 8% 이상이고 經常收支黑字는 50~60억달러로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관점에서 새해경제의 向背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88년경제전망상의 가장 不確實性 요인이 되고 있는 元貨切上和 對韓輸入規制로 인한 輸出與件惡化의 정도가 적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우리경제는 內需急增에다 輸出好調로 활황을 누릴 것이고 貿易黑字의 누증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成長率은 87년보다 더욱 높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輸出與件이 惡化되면 國內景氣는 주로 內需急增 한가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輸入은 증대할 것이 豫想되므로 무역흑자폭은 크게 줄어들는지 모른다고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國內景氣의 好況은 經濟成長率을 정부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큰 것으로 결과할 것 같이 여겨진다. 그만큼 88년은 經濟外的인 景氣刺戟的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또 바로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새해에는 그 어느 경우나 물가양등이 또한 우려되는 해라고 하겠다.♣